

전국이 주목한 육아수당...강진군, 인구정책 ‘롤모델’ 우뚝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출산 지원·주거복지 등 통합형 정책 ‘효과’
출생아 2022년 93명→지난해 170명...합계출산율 2년 연속 전국 2위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에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아 주목을 끌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지원, 주거복지, 생활인구 확장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정책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가운데 단 3곳에만 수여됐다. 강진군의 인구정책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강진군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지원, 주거복지, 생활인구 확장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육아수당 제도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강진군 육아수당은 출생아 1인당 월 60만 원을 최대 84개월(총 50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출생순위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출생아 수는 2022년 93명에서 2023년 154명, 2024년 170명으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2023년 1.47명, 2024년 1.60명으로 2년 연속 전국 2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수해가정의 68%는 강진군 내 계속거주자며 이는 외부 인구 유입이 아닌 실제 지역 내 출산 증가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선거 운동 당시 강진군 지역공약에도 포함됐다. 강진군은 이를 국가에 앞서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입증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군은 단순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출산과

정책이 동시에 가능한 환경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강진품에 빈집 리모델링 사업’, 1인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정부 기반과 출산 유인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를 운영 중이다.

강진군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정식 도입한 ‘강진품에 온 군민’(사이버 군민 제도)은 온라인으로 가입한 외부인이 강진관광·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 3개월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하며 관계인구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관광객의 여행경비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반값여행’ 정책을 통해 연간 70억원이상 소비도 지역에 환원되고 있다.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제도 도입(2025년 시행)의 기반이 됐으며 태백시, 남해군, 영암군 등 여러 지자체가 강진군을 벤치마



강진군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강진군 제공>

켰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도입했고, 출산율 상승이라는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진형 육아수당이 저출산 대응의 실질적 전환점이자, 국가 정책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대교 ‘생명의 문’ 경관조명으로 화려한 변신

화제로 손상된 시설 전면 교체
방문객에 야간 볼거리 선사

나주시가 나주대교 상징 조형물인 ‘생명의 문’ 경관조명을 전면 보수하고 계절별 색채를 입힌 야간 경관조명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개선 작업은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생명의 문’은 생명의 모태인 알을 형상화해 생명의 탄생과 조화 그리고 나주의 풍요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지난 2006년 나주대교 중앙에 설치됐다.

화제로 인해 조명 작동이 중단됐던 기존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경관조명뿐만 아니라 센서와 제어장치까지 보강했다. 나주의 대표적 도심 경관 시설로서 품격을 높이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계절감을 담은 야간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새롭게 교체된 조명은 기존의 단일 색상에서 벗어나 계절별로 나주의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조명을 연출한다.

봄에는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금성산의 초록색, 여름에는 역동적인 영산강의 푸른색, 가을에는 수확의 풍요를 나타내는 나주평야의 황금색, 겨울에는 전통과 온기를 담은 목사내야의 적색이 각각 적



경관조명 전면 보수와 교체 마친 나주대교 생명의 문. <나주시 제공>

용된다. 또 나주시민의 날, 영산강축제 등 주요 행사나 기념일에는 행사 분위기에 맞춘 특색 있는 조명 연출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아영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새롭게 정비한 생명의 문은

단순한 야간 조명을 넘어 계절과 역사, 시민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시민의 삶과 도시의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도시 경관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내일 개장

8월 17일까지 한달간 운영...“음식배달도 가능”



이상익(가운데) 함평군수와 공무원들이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안전시설 점검을 마치고 18일 개장한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31일간 운영하며, 매년 3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는 전남 대표 피서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 물놀이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평군 자체 캐릭터 ‘황박이’를 활용한 차광막 디자인이다.

입구와 물품대여소 등 차광 시설에 황박이 캐릭터를 넣어 이용객이 대기하거나 쉴 때도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그늘막, 쉼터, 락커룸 등 무료 편의시

설을 마련했다. 특히 조리된 배달음식 반입이 가능한 것은 다른 지역 물놀이장과 차별화된 요소다.

함평군은 여름철 햇빛 노출이 장시간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차광막과 인조잔디 매트 설치 상태를 세심히 점검했다.

현장에는 인명구조요원, 의료요원, 안전요원 등을 충분히 배치해 사고를 예방한다.

물놀이 페스타 대표 프로그램 ‘서바이벌 물총대전’에 대비해 샤워부스 5대와 해바라기 수전 4대의 작동 상태도 점검을 마쳤다.

/함평=한수용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어르신, 일상 유지 훈련으로 ‘치매 예방’

60세 이상 인지강화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경증 맞춤 서비스

나주시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치매예방·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정상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교실과 모락(樂)모락(樂)프로그램, 인지 저하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참여하는 인지강화교실, 경증 치매 어르신이 참여하는 치매환자쉼터 및 ‘홈콜링 뇌총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예방 교실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분소인 공산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환자 쉼터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치매 초기 단계 환자들이 낮 시간에 보호받으며 인지기능 강화 활동, 일상생활 유지 훈련, 사회적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

6월부터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홈콜링 뇌총총+’ 프로그램은 오는 9월까지 운영하며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

에서는 프로그램 외에도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 환자의 약제비를 지원하고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이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분께서는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모금 시작

백일장·역사탐방 프로그램 확정

장흥군이 2건의 고향사랑기부채 지정기부사업을 확정하고 공식 모금에 들어갔다.

장흥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의결을 통해 지정기부사업으로 ▲나도 한강 전국 학생 백일장 대회 ▲엄빠와 함께하

는 초등학생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구조다.

‘나도 한강 전국 학생 백일장 대회’는 4000만원을 목표로 공식 모금을 시작한다.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운문과 산문 백일장은 물론 문학 멘토링 강

연과 문학문화 체험 부스를 함께 운영하는 종합 문학사로 추진된다.

‘엄빠와 함께하는 초등학생 역사탐방 프로그램’은 6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정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내 주요 사적지를 부모와 함께 방문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교육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모금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문화재단 ‘지역문화 우수사례상’

해동문화예술촌 문화재생 성과

담양군 문화재단이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이하 한지총)가 주관하는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지역문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상(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지총 및 부산시 금정구가 주최하고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재)금정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담양군문화재단은 ‘문화로 되살아나는 담양의 원도심, 예술과 지역민을 잇는 해동문화예술촌’ 사례가 문화매개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동문화예술촌은 해동주조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악앙상블클래스, 담빛과이어플레스를 비롯해 야간축제 솔로우 해동, 레지던시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예술인·청년층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 문화 거점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담양군문화재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페스타 기간 동안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 전시관’ 부스를 운영, 해동문화예술촌의 주요 성과와 사례를 소개하고, 다른 지역 문화재단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의 여름, 클래식으로 물들다’

군민오케스트라·합창단 무대...19일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

담양군이 오는 19일 오후 4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담양의 여름, 클래식으로 물들다’ 정기연주회를 연다.

(사)누림(이사장 정세기)이 주관하고 전남도와 전남도문화재단, 담양군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2025 공연장 협력예술단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주민 참여형 무대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

무대의 주인공인 ‘담양군민오케스트라’는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지역 주민 중심의 오케스트라다. 단원 30여명이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을 이어가며, 음악을 통해 세대와

이웃을 잇는 문화공동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정기연주회인 이번 무대에는 담양군꿈가이드오케스트라(청소년)와 담양여성합창단(성인)이 함께하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합쳐 총 100여명이 무대에 오른다. 세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합동 무대로,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의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됐다. ‘문어의 꿈’, ‘인생의 회전목마’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곡부터 ‘격정말야요 그대’ 등 성인 관객에게 익숙한 노래들이 연주와 합창으로 무대를 채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